

중국 山東省 鐵山の 거대한 佛教 刻經碑 - 6세기 후반 漢族의 문화적 정체성 구현

The Gigantic Buddhist Stele Carved on Mt. Tie in Zoucheng in the Late Sixth Century : Han Patronage and Their Social and Cultural Goals

저자 (Authors)	하정민 Jungmin Ha
출처 (Source)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 (294), 2017.6, 131-159 (29 pages)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Formerly Art and Archaeology) , (294), 2017.6, 131-159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미술사학회 Art History Association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6744
APA Style	하정민 (2017). 중국 山東省 鐵山の 거대한 佛教 刻經碑.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 (294), 131-15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5:1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중국 山東省 鐵山의 거대한 佛教 刻經碑: 6세기 후반 漢族의 문화적 정체성 구현

하정민*

- I. 서론
- II. 철산에 새겨진 『大方等大集經』과 그 불교적 의미
- III. 石碑, 서예, 미적 감상비평: 철산 각경에 채택된 중국 한족 엘리트 전통 요소들
- IV. 철산 각경의 사회 문화적 동기: 漢族 후원자의 문화적 정체성 구현
- V. 결론

I. 서론

중국 산둥성 남서부 鄒城시에 위치한 鐵山의 산기슭에는 약 45도의 경사면을 따라 佛教 經典의 일부가 새겨져 있다(도 1, 2).¹ 근래에 세워진 울타리와 그 안쪽에 놓여진, 각경을 오르내리며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좁은 계단으로 둘러싸인 이 각경의 전체 면적은 높이 약 51.7m, 폭 약 14m에 달한다(도 3).² 불교 경전과 佛의 명칭 등 불교 관련 텍스트를 산의 바위 표면에 직접 새긴 것을

* 서울대학교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Shaping Religious and Cultural Aspiration: Engraved Sutras in Southwestern Shandong Province from the Northern Qi Dynasty(550-577 CE), China”(Duke University, 2016)의 일부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¹ Lothar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in China, Shandong Province* vol.2 (Wiesbaden: Harrassowitz, 2015), p.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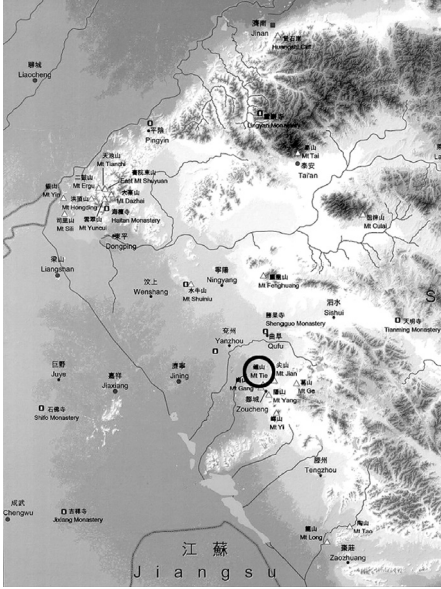
² 울타리와 계단은 1980년대 각경을 보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obert E. Harrist, *The Landscape of Words: Stone Inscriptions from Early and Medieval China*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8), p. 162; Ledderose ed., *Buddhist*

佛敎 摩崖刻經이라 하는데,³ 이는 北齊代(550-577)에 산동성 남서부에서 활발히 조성된 불교 및 불교미술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⁴ 북제대에는 바위로 된 산의 표면에 직접 새긴 마애 각경 이외에도, 산에 석굴을 만들고 그 석굴 내외의 벽면에 불교 경전을 새기는 등 다양한 石經이 산동성에 서뿐만 아니라, 북제 수도 鄴城(현재 河北省 臨漳縣)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서도 활발히 제작되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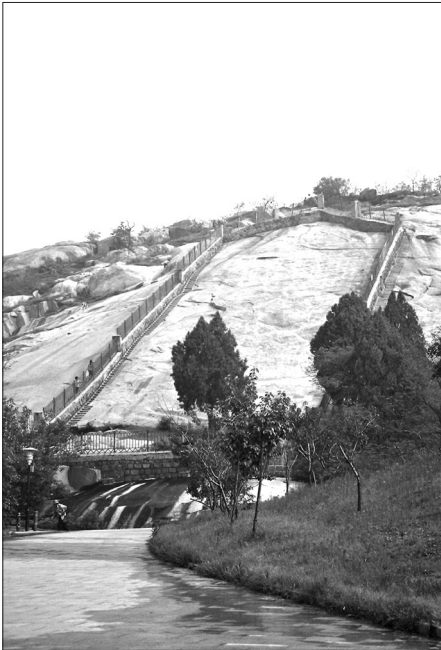
철산의 각경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이 각경이 중국 漢代에 형성된 전통적인 石碑의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도 4).⁶ 직사각형 형태 안에 불교 경문을 새겨 넣었고, 그 상단에는 바깥쪽을 향한 두 마리의 용이 선각으로 새겨졌다(도 5).⁷ 하단에는 우측 코너에 큰 거북이가 이 비를

Stone Sutras, Shandong 2, p. 98. 각경이 새겨진 암면의 높이와 폭의 측량은 Ledderose ed., 위의 책, pp. 96, 139을 따랐다. 본문의 치수는 불교 경문이 새겨진 면 상하의 용과 거북이 장식을 포함한 것이고, 경문을 새긴 부분만의 높이는 34.7m, 폭은 13.8m이다.

- 3 중국에서 '마애'라는 용어는 宋代(960-1279), 11세기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Harrist, 위의 책, pp. 24-25 and 302n30.
- 4 산의 표면에 직접 새겨진 불교 마애 각경은 대체로 553년부터 580년경까지 제작되었다. 북제 왕조는 577년에 北周(557-581)에 패하여 멸망하였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불교 마애 각경 중 몇 기는 북주대에 제작된 것이다. 그러나, 석굴 벽면이나 산의 절벽 면에 불교 텍스트를 새기는 활동은 북제 불교 및 불교미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므로, 북제가 멸망한 후 제작된 예라고 해도 여전히 북제의 전통 하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제 산동성 마애 각경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賴非, 『山東北朝佛敎摩崖刻經調查與研究』(北京: 科學出版社, 2007); 桐谷征一, 「北齊大沙門安道壹の刻經事跡」, 『大崎學報』 158 (2002), pp. 1-67 참조. 본고에서 사용하는 '산동'은 현재 중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 산동성을 의미함을 밝혀둔다. 역사적으로 '산동'의 지역적 범위에 대해서는 賴非, 『山東泰嶧山區における刻經の新資料と北朝隋唐期の佛敎』, 氣賀澤保規 編, 『中國中世佛敎石刻の研究』(東京: 勉誠出版, 2013), p. 58; 國家文物局 編, 『中國文物地圖集山東分冊』上(北京: 中國地圖出版社, 2007), p. 1 참조.
- 5 업성 부근의 대표적인 각경 예는 小南海 中窟과 北響堂山 南窟이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Katherine Tsiang, "Monumentalization of Buddhist Texts in the Northern Qi Dynasty: the Engraving of Sutras in Stone at the Xiangtangshan Caves and Other Sites in the Sixth Century," *Artibus Asiae* 56-3/4/ (1996), pp. 233-261; Sunkyung Kim, "Seeing Buddhas in Cave Sanctuaries," *Asia Major*, third series, 24-1 (2011), pp. 87-126 참조. 북제대 업성 주변 지역의 석경과 산동성의 여러 산에 새겨진 마애 각경은 형태와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업성 주변 지역의 석경은 석굴사원 내외벽의 매끈한 벽면에 새겨진 반면, 산동성 마애 각경은 산의 거친 절벽 면에 새겨졌다. 각경이 차지하는 면적의 크기와 새겨진 각 글자의 크기도 산동성 마애 각경의 예들이 업성 부근의 각경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각경을 위해 선택된 불교 경전의 내용 면에서도 산동성과 업성 주변의 각경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산동성의 마애 각경이 주로 般若經 계통의 가르침과 관련 깊은 반면, 업성 주변 지역의 각경은 華嚴 및 十地 사상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정민, 「북제(北齊) 산동성 홍정산(洪頂山)에 새겨진 불교 텍스트: 선정 수행을 위한 불교 각경(刻經)」, 『미술사와 시각문화』 17 (2016), pp. 158-159, 180n7-n8 참조.
- 6 철산 각경이 아래에 거북이가 받치고, 위에 용이 올려진 중국 전통적인 석비의 형태로 제작되었음은 1986년 山東省石刻藝術博物館 연구원들의 현지 조사에 의해 알려졌다. Harrist, 위의 책, pp. 205-206.
- 7 남아 있는 용과 아래의 거북이 형태의 탁본 및 그 복원도는 Ledderose ed., *The Heart of Enlightenment: Buddhist Art in China 550-600* (Köln: Museum für Ostasiatische Kunst, 2009), fig. 8, pp. 28-30;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97, 1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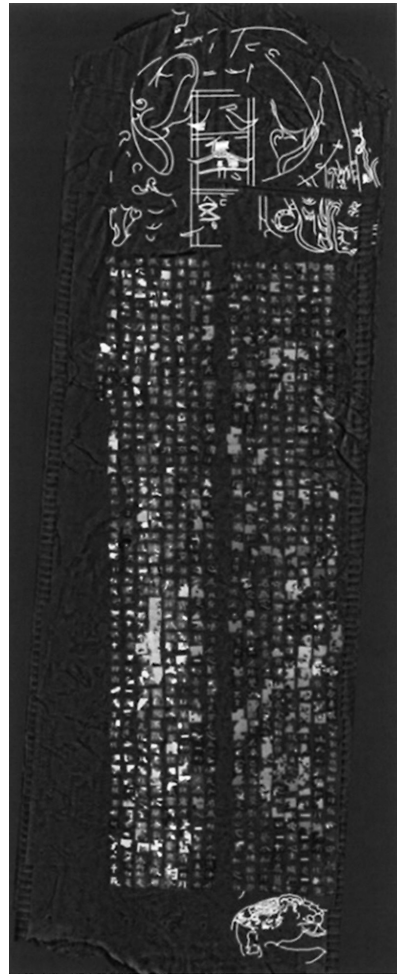
도 1 산둥성의 마에 각경 사이트 분포도(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in China Shandong Province* vol. 1, 앞표지 안쪽면).



도 2 철산 각경 전경(하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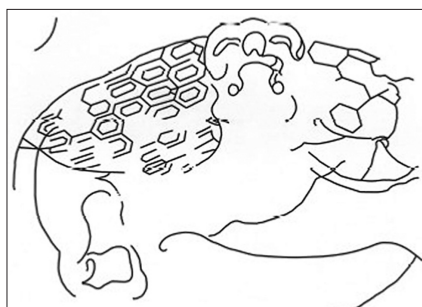
도 3 철산 각경의 좌측 아래 부분 세부(하정민). 근래 제작된 울타리와 계단, 그 주변에서 탁본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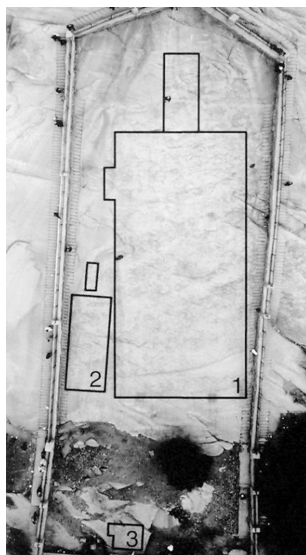
도 4 각 글자의 탁본으로 구성된 철산 각경 복원도. 碑首의 용과 碑座의 거북이 선묘도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in China Shandong Province* vol. 2, p. 118, fig. 39).



도 5 도 4의 세부(碑首의 용과 題額의 '大集經'의 세 글자).



도 6 도 4의 우측 아래 거북이 선묘도(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in China Shandong Province* vol.2, p.97, fig.31).



도 7 철산 각경의 항공사진에서 본 각경과 題記의 분포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in China Shandong Province* vol.2, p.87, fig.29).



도 8 각 글자의 탁본으로 구성된 철산 각경 제기 '石頌'(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in China Shandong Province* vol.2, p.150, fig.49).

받치고 있는데, 육각형 모양의 귀갑문이 오늘날까지 뚜렷하게 남아 있다(도 6).⁸ 상하단의 용과 거북이를 포함하여, 철산 마애 각경은 말 그대로 높이 51.7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刻經碑인 셈이다.⁹

철산의 각경에는 ‘石頌’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장문의 각경 제기가 각경의 바로 좌측 아래쪽에 새겨져 있다(도 7).¹⁰ 최근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각경(도 7의 1)과 ‘석송’(도 7의 2)이 제작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나란히 위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 7). ‘석송’은 각경과 비교되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그 자체로 높이 17m, 폭 4m의 상당한 크기이다(도 8).¹¹ ‘석송’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각경 제작의 후원자, 제작년도, 후원자들의 바램 등 각경 제작을 둘러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¹² 그에 의하면 당시 이 지역의 독실한 불교도 匡喆과 그 아우

8 거북이가 기단부의 우측 절반 부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두 마리의 거북이가 한 쌍으로 새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뒤에 상세히 언급할 ‘석송’의 내용 중에 이 각경비를 두 마리의 거북이가 받치고 있다고 하였다. 뒤의 III장 각주 29 참조.

9 철산의 각경의 형태와 내용의 전반적인 설명은 Harrist, 위의 책, pp. 157-217;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84-189 참조.

10 Zhang Zong, “Mount Tie-Time: Dating,” in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 102.

11 ‘석송’은 모두 616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글자는 약 22cm의 크기이고, 총 12줄로 배열되어 있다. 글의 구성은 앞의 열 줄의 산문(駢體)과 뒤 두 줄의 운문(頌)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佛法과 佛經의 가치에 대해 논하며 시작하여, 이 기념비의 후원자들과 철산 각경이 새겨진 장소와 날짜, 그리고 각경의 서예를 위해 승안도일을 모셔왔음을 차례로 기록한다. 이어서 경전이 석비의 형태에 새겨졌고, 따라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음을 강조하며, 돌에 새겨진 이 경전이 영구불멸하게 보존될 것임을 설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을 운문으로 반복하며 글이 마무리된다. 석송에 대한 연구로는 相川政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相川政行, 『鐵山大集經和經頌書法研究』, 山東省石刻藝術博物館 編, 『北朝摩崖刻經研究續』(香港: 天馬圖書有限公司, 2003), pp. 135-157(같은 내용이 일본어로 相川政行, 『鄒城市鐵山「大集經」題刻と「石頌」の研究』, 『立正大學文學部研究紀要』, 20, pp. 1-17에 재간행); 相川政行, 『鄒城市鐵山「大集經」題刻と「石頌」の研究(再考)』, 相川鐵崖古稀記念書學論文集編集委員會 編, 『相川鐵崖古稀記念書學論文集』(東京: 木耳社, 2007), pp. 33-51. 석송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해석은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109-112; 151-174 참조.

12 철산의 주요 각경제기는 ‘석송’인데, 이외에 짧은 제기가 두 점 더 있다. 한 점은 현재 학계에서 ‘題記’라고 불리는 명문으로, 철산의 각경과 ‘석송’에서 16m 아래에 높이와 폭 3.3m의 정사각형 구획 안에 새겨졌다. 내용은 經主 孫洽, 글을 쓴(書經) 승안도일, 大都唯那 呂長嵩의 세 사람의 참여자 명단이다(“寧朔將軍 大都督 任城郡守 經主孫洽 東嶺僧安道壹署經 齊搜揚好人 平越將軍 周任城郡主簿 大都唯那間長嵩”),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99, 177-178. 이외에 21글자로 이루어진 짧은 명문이 한 점 더 있었는데, 1960년대 파괴되어 현재 탁본과 금석학자들의 기록으로만 전해진다. 여기에는 또 한 명의 대도유나 李巨敖의 이름이 적혀 있다(齊任城郡 功曹周 平陽縣 功曹 大都唯那 趙郡 李巨敖), Ledderose ed., 위의 책, pp. 185-186. 이 짧은 두 제기에서 서예가 승안도일 이외의 세 사람은 모두 이 부근의 관직을 역임한 사람들이었고, 그 중 대도유나 呂長嵩과 李巨敖는 북제와 북주대에 모두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석송’에 적힌 광씨 형제들과 두 짧은 제기에 기록된 세 사람의 지방 관리들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학자들은 대체로 광씨 형제들이 뜻이 같은 몇몇 邑人들과 함께 각경 제작을 위한 실제적 재정적 지원을 했고, 다른 세 관리는 왕조가 바뀌는 혼란스런 시대에 이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쓴 사람들일 것이라고 본다. 王思禮·賴非, 『中國北朝佛教摩崖刻經』, 山東石刻藝術博物館 編, 『北朝摩崖刻經研究』(濟南:

들 顯, 祖, 珎이 그들과 뜻이 같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각경을 제작했고, 그 완성 연대는 大象元年, 즉 579년이었다.¹³

본고는 북제 말기에 광철 형제가 자신들을 위한 불교 기념비를 만들고자 했을 때에, 어떠한 이유로 거대한 산의 표면에 각경을 새기도록 했으며, 그것도 중국 전통의 석비 형태를 채택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왜 그들은 당시 많이 제작되던 불교 미술의 타입, 즉 독립 불보살상, 불교 조상비, 혹은 불교 석굴 등을 제작하지 않고, 산의 표면에 전통적인 석비의 포맷으로 불교 경전을 새기는 쪽을 택했을까? 이를 통해 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고는 새겨진 불교 텍스트와 함께 철산 각경의 시각적인 특징 및 석송에 설해진 후원자의 정체성과 모뉴먼트에 대한 설명에 주목하여, 철산 각경의 제작 동기와 역사, 사회 문화적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철산 각경의 제작 동기에는 불교적 요소와 사회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먼저 철산에 새겨진 불교 텍스트와 그 불교적 의미를 살펴보고, 철산 각경의 시각적인 특징 및 석송에 설해진 후원자의 정체성과 이 유물에 대한 설명에 주목하여, 철산 각경을 위해 사용된 여러 한족 엘리트 전통요소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철산 각경이 제작에는 불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한족들의 문화적 정체성 구현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동기도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¹⁴

오늘날 산동성에 전해지는 불교 유물들은 우리나라 고대 불교문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주목되어 왔다. 기존에는 불보살상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본고는 산동성에

齊魯書社, 1991), pp. 25-27. Ledderose ed., 위의 책, p. 101; Harrist, 위의 책, p. 166; 賴非, 『齊魯碑刻墓誌研究』(齊南: 齊魯書社, 2004), p. 123.

¹³ “是时有信佛弟子匡喆及弟顯口祖珎…大象元年.” 본고에 인용된 ‘석송의 석문은 張廣存, 『《鐵山刻經頌》識讀並校注』, 山東省石刻藝術博物館 編, 『北朝摩崖刻經研究 續』(香港: 天馬圖書有限公司, 2003), pp. 217-218;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150-158을 따랐다. 석송의 후원자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Jungmin Ha, “Shaping Religious and Cultural Aspiration,” pp. 216-219 참조. 간혹 최근 탁본에서는 마멸되어 보이지 않는 글자가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청대 금석학자들의 기록과 이전에 만들어진 탁본에 근거해서 복원되었다. ‘석송’ 중 본고에서 인용되는 부분의 한글 번역은 원문과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162-166의 영어 번역을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¹⁴ 철산의 불교각경을 새긴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북제대 수도 업성과 안양 부근의 여러 석굴의 벽면에 불교 경전을 새기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기존 중국 미술사학계에서는 크게 불교적 공적을 쌓기 위한 것, 불교 경문을 보존하기 위한 것, 그리고 경정 숭배의 맥락에서의 ‘기념물화’(monumentalization)의 세 가지의 요인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요소들 모두 철산의 각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철산 각경 및 이의 산동성의 다른 마에 각경 대부분에, 말법시대를 대비한 경문의 보존이 그 중심적인 목적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에 각경은 산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비바람 등의 자연 요소에 노출되어 시간에 따른 마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 제작된 또다른 불교 미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철산 각경은 후원자들이 불보살상, 불교 석굴, 불비상 등의 여러 다양한 불교미술 중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잘 표현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형태를 선택하여 제작한 예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술 품과 후원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분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철산에 새겨진 『大方等大集經』과 그 불교적 의미

철산 각경은 기본적으로 불교 기념비이기 때문에, 이곳에 새기기 위해 선택된 불교 경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뉴먼트와 관련된 불교 승려가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제대 불교 마에 각경은 산둥성 남서부 東平, 兗州, 泰安, 鄒城 부근의 20여 곳의 산에서, 550년대부터 570년대까지 활발히 조성되었다.¹⁵ 본고의 중심인 철산의 불교 각경은 관련된 중심 승려와 새겨진 경전의 내용에 있어서, 철산이 위치한 추성시의 북서쪽으로 300여 km 떨어진 동평 洪頂山의 각경과 공통점이 있어서 주목된다.

각경 제기 '석승은 철산 각경의 서예가 '大沙門 安法師'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였다.¹⁶ 이 인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왕조사, 고승전류, 혹은 지방지에 전혀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의 傳記, 사상 및 師承關係 등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자료는 산둥성의 여러 산의 절벽 면에 새겨진 각경 제기가 전부이다. 현재 남아 있는 이들 기록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대사문 안법사는 '僧安道壹', 또는 '僧安'이라고도 불렸고, 이 철산 각경이 행해지기 전에, 550년대부터 570년대 중반까지 산둥성의 홍정산, 二鼓山, 尖山 등에서도 각경 활동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제대 산둥성에서 불교 마에 각경이 홍정산에서 새겨지기 시작하여, 보다 넓은 지역까지 확산되며 제작되게 된 데에 승안도일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잘 보여준다. 승안도일의 출신 및 근거지 등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산둥성의 여러 마에 각경 사이트에서 불교 각경을 조직, 후원하며 글씨를 쓴 서예가로서 명성을 날린 인물이었음은 분명하다.¹⁷

¹⁵ 북제 마에 각경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賴非, 『山東北朝佛教摩崖刻經調查與研究』, pp. 1-4; 桐谷征一, 위의 논문, pp. 1-67;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in China, Shandong Province* vol. 1 (Wiesbaden: Harrassowitz, 2014), pp. 19-23 참조.

¹⁶ “於是齊大沙門安法師者…”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 156.

¹⁷ 승안도일의 姓名, 鄉關, 事跡, 서예가로서의 명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하정민, 위의 논문, pp. 162-163, 184-187, 미주 n24-31 참조.

그는 특히, 철산이 위치한 추성시의 북서쪽으로 300여 km 떨어진 동평 홍정산에서 몇몇 다른 승려들과 함께 550년-560년대에 각경 활동의 시작을 이끌었다. 홍정산의 여러 경문의 배치와 내용을 통해, 이곳에 새겨진 『文殊師利所說摩訶般若波羅蜜』(이하 『문수설반야경』으로 약칭)의 ‘般若波羅蜜’과, 『대방등대집경』(이하 『대집경』으로 약칭)의 ‘六波羅密’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문이 깊고 고요한 산 속에서 이 각경을 바라보며, 불교 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음을 알 수 있다.¹⁸ 같은 승려가 철산에서도 각경의 서예를 맡으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철산 각경의 목적 또한 불교도들의 수행과 관련 깊음을 알려준다.

마에 각경이 불교도들의 수행과 연관된다는 점은, 새겨진 불교 경전의 내용으로도 확인된다. 철산에 새겨진 경전 부분은 홍정산에 새겨졌던 『대집경』의 ‘육바라밀’에 관한 경문과 그 전후까지 포함하는 훨씬 긴 경문이다. 철산의 불교 텍스트가 어느 경전에서 발췌된 것인지는 경전의 내용을 직접 살펴보지 않더라도, 각경 상단부의 제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의 상단에 새겨진, 용으로 둘러싸인 제액에 ‘大集經’이라는 세 글자가 보인다(도 5). 즉, 이 텍스트는 曇無讖(385-433)이 420년 경 번역한 『대집경』의 일부이며, 大正新脩大藏經本에는 第五『海慧菩薩品』안에 포함되어 있다.¹⁹

새겨진 부분의 내용은 도입부에 菩提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육바라밀과 四無量心 등 불교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며 불교도들의 수행을 격려하고 있다.²⁰ 또한 각경 제기 ‘석송’에서도 석가모니의 설법을 듣고 많은 중생이 보리심을 발해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음을 경전의 내용을 되풀이하며 언급하고 있어서,²¹ 철산 각경이 제작자들을 포함한 지역 불교도들에게 보리심을 강조하고, 불교 수행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후원자인 광철 형제

¹⁸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1*, pp.31-36; 하정민, 위의 논문, pp.171-176.
¹⁹ T. 397, 13: 50a16-c13. 철산에 새겨진 『대집경』의 석문은 賴非, 『山東北朝佛教摩崖刻經調查與研究』, pp. 112-118;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119-129 참조. 각경 위의 제액에 적힌 『대집경』의 세 글자 외에, ‘석송’도 이 텍스트가 『대집경』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혔다. 다만, ‘석송’에는 이 경문이 “大集經 穿菩提品”에서 온 것이라고 기록하여(“大集經穿菩提品九百卅字”), 현재 대정본의 품명과 다르다.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105-106. 이는 중세 중국에서 불교 경전의 품명이 유동적인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張總, 『北朝至隋山東佛教藝術查研新得』, 巫鴻 編, 『漢唐之間的宗教藝術與考古』(北京: 文物出版社, 2000), p. 79n21; Harrist, 위의 책, pp. 162-163 and 328n13.
²⁰ 철산 『대집경』 경문 내용에 대한 해석 및 분석은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106-109, 130-138; Ledderose ed., *The Heart of Enlightenment*, pp.56 and 140-144이 참고할 만하다.
²¹ “釋迦本演之世 于時 十二那由他衆生發菩提心一萬六千天子得無生法忍.”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 165.

가 신실한 불교도임을 언급한 것도 이 각경의 불교적인 의미와 관련된다.²²

그런데, 철산 각경은 그 위치와 시각적인 특징에 있어서 산동성 내 다른 마애각경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어서, 각경 자체가 선정 수행을 돕기 위한 직접적인 장치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각경의 위치를 보면, 철산의 각경은 산길을 따라 완만한 산길을 조금만 걸어 오르면 쉽게 이를 수 있는 산기슭의 공개적인 위치에 새겨졌다. 이는 홍정산, 嶧山 등 산동성 내 많은 다른 북제대 불교 마애 각경이 산속 깊숙이 조용한 곳에 새겨져서, 그곳에서 각경을 마주하고 앉아서 선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과 다르다.

다음으로 시각적인 특징 면에서 철산의 각경은 큰 규모를 자랑하며, 멀리서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작되었다. 산동성 내 북제대 다른 사이트의 마애 각경이 약 3-7m 높이의 산의 절벽 면에 100자 이내의 경문을 각 30cm 내외의 글자로 새긴 데 반해, 철산의 각경은 높이 50미터가 넘는 거대한 산의 표면에 946 글자의 긴 경문을, 각 글자의 크기도 50cm로 크게 조각했다.²³ 또 다른 각경 사이트의 각경이 단순히 직사각형의 구획 안에 새겨진 데 반해, 철산 각경은 중국 전통적인 석비의 형태로 제작되었다.²⁴

이처럼 공개적인 장소에 거대한 규모로, 독특한 포맷으로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철산 각경의 매우 두드러진 특징임을 이해하면, 이 각경 자체가 선정 수행을 돕기 위한 직접적인 시각적 장치는 아니었으며, 그 각경을 보는 모든 불교도들에게 불교 수행을 격려하는 의

²² 앞의 주 13 참조.

²³ 현재 알려진 산동성 북제대 마애 각경 중에서 철산 각경과 비교할 만하게 큰 규모로 제작된 것은 570년 이후에 제작된 태안시 泰山에 새겨진 『金剛經』(570년대로 추정)과 철산에서 매우 가까운 추성시 葛山에 새겨진 『維摩詰所說經』 경문(580년)이 있다. 태산의 각경은 현재 알려진 마애 각경 중 가장 넓은 면적에 가장 긴 경문이 새겨졌다(전체 경전의 반 이상인 3000여 자가 새겨짐). 갈산의 각경은 철산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총 389자가 새겨졌다. 반면에, 550-560년대에 산동성 내에 북제대에 새겨진 북제 마애 각경은 길어야 100자를 넘지 않는다. 賴非, 『山東北朝佛教摩崖刻經調查與研究』, p. 46; Harrist, 위의 책, p. 182.

²⁴ 북제대 산동성 지역에 제작된 마애 각경 중에서 중국 전통적인 석비의 형태로 제작된 예가 한 점 더 알려졌다. 이는 동평 홍정산에 550-56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현재 파손이 심한 상태이지만 아래에 거북이 한 마리와 위에 용의 모습이 확인된다. 새겨진 내용은 『摩訶般若波羅蜜經』의 ‘十八空’에 관한 것인데(T. 223, 8: 250b3-7), 제목에는 《摩訶衍經》이라고 적혀 있다.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1*, pp. 89, 125-130, 도판은 p. 125의 fig. 29와 p. 126의 fig. 30 참조. 桐谷征一은 이 각경에 대해서, 승안도일이 의도적으로 중국 석비의 형태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桐谷征一, 위의 논문, p. 43. 그러나 필자는 홍정산에서 승안도일과 그의 동료 승려들은 마애 각경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였고, 당시 알려진 여러 가지 돌과 관련된 시각물의 형태를 실험하는 중이었다고 생각한다. 홍정산의 열여섯 점의 각경 중에서 오직 이 예만이 석비의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따라서 이 예에서만 석비의 형태가 의도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미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교 경전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하면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²⁵ 불교 경전 자체에 대한 신앙 역시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다고 생각된다.²⁶

III. 石碑, 서예, 미적 감상비평: 철산 각경에 채택된 중국 한족 엘리트 전통 요소들

이상에서 철산의 거대한 불교 마애 각경이 지역 불교도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종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철산 마애 각경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점은 불교 기념비인 이 각경에 다른 같은 시기 불교 각경 중에는 보이지 않는 한족 엘리트 전통의 여러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앞서 언급했듯 중국 석비 형태이다(도 4). '석송에서 철산 각경이 석비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후원자들은) 돌을 다듬고 비석을 새겨 넣어, 평범한 바탕을 빛나게 하였다. 육룡이 위에서 둘러싸고 있고,²⁷ 그들의 입은 오색 [...] 구름으로 빛나고 있다. 두 마리의 거북이가 아래에 웅크리고 있고, 그들의 등껍질은 삼계의 길을 지지하고 있다.²⁸ 崑崙山の玉誥, 東觀의 金簡, 그리고 周穆王의 공작기, 秦始皇의 석각비문조차, [...] 현재 능가하는 [...], 이 철산 각경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²⁹(밑줄은 필자)

²⁵ Harrist, 위의 책, pp. 182-185; Hou Xudong, "The Buddhist Pantheon," in John Lagerwey and Lü Pengzhi, eds., *Early Chinese Religion, Part two: the Period of Division (220-589AD)* (Leiden; Boston: Brill, 2010), pp. 1156-1160.

²⁶ Harrist, 위의 책, pp. 182-188. 불교 경전에 대한 신앙으로는 Tsiang, "Monumentalization of Buddhist Texts," p. 257; Gregory Schopen, "The Phrase 'sa prthivipradeśaś caityabhūto bhavet' in the Vajracchedikā: Notes on the Cult of the Book in Mahayana," *Indo-Iranian Journal* 17, nos. 3-4 (Nov.-Dec. 1975), pp. 147-181 참조.

²⁷ 張廣存은 '六'자가 '交'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張廣存, 『鐵山刻經頌』識讀並校注, p. 226. 그러나, 최근 정밀한 조사와 탁본에 의해 '六'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 159. 相川政行은 '석송에 육룡이라고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용 두 마리만 묘사되었다고 언급하였다. 相川政行, 『鐵山大集經和經頌書法研究』, 山東省石刻藝術博物館編, 『北朝摩崖刻經研究續』(香港: 天馬圖書有限公司, 2003), p. 142.

²⁸ 여기서 "삼계의 길"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지 않다. 맥락상 스틸리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문이 새겨진 경사진 암면의 굴곡을 언급할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 161n638.

²⁹ "遂乃約石置碑 爇炳常質 六龍上繞 口瑩五彩 雲雙龜下蟠 甲負三階之路 縱使崑崙玉誥 東觀金簡 周穆記功 秦皇勒績 口今勝口 譬彼蔑如也."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162-166 참조.

이 서술을 통해 철산 각경 제작자들은 여러 다양한 포맷 중에서 전통적인 석비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석송’에 따르면, 철산의 평범한 경사면을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만든 것이 바로 석비의 형태이다.³⁰ 더 나아가 ‘석송’의 저자는 철산의 각경이 거대한 석비의 형태로 제작되었기에, 도교의 곤륜산의 옥첩, 동관의 금간, 그리고 주목왕의 공적기, 진시황의 석각비문 등, 중국 고대의 기념비적 유물들과 비교해도 자신들이 만든 철산 모뉴먼트가 매우 뛰어나다고 서술한다.³¹

뿐만 아니라, ‘석송’은 철산 각경의 서체가 매우 훌륭한 서예로 이루어져 있음을 앞 부분의 산문체 부분에서 서술하고, 다시 뒤에 운문의 형태로 덧붙여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이 때에 복제 大沙門 安法師가 있었는데, 그의 道는 不二를 살피고, 그의 德은 一原을 깨달았다.
 그는 모든 신비한 것들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서예는 최상의 솜씨이다. 따라서, (후원자들은) 이 神의 붓을 청하여…
 대사의 보배로운 서법을 찾아,
 모든 지역들 […][…] 높이,
 그 精함은 王羲之와 韋誕을 능가하고,
 妙함은 張伯英과 鐘繇를 뛰어넘는다.
 안개 속에서 몸을 휘어감는 용과 같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봉황과 유사하다.³²(밑줄은 필자)

이에 의하면, 승안도일의 서예는 최상의 경지이며, 이 때문에 각경의 후원자들이 그에게 각경의 서예를 써 줄 것을 청하였다고 하였다. 또, 승안도일의 서예를 이전 시대의 저명한 서예가들과 비교하며, ‘精’, 즉 세련됨은 王羲之(303-361)와 韋誕(179-253)을 능가하고, ‘妙’ 즉 경이로움은 張伯英(張芝, d. ca. 192), 鐘繇(151-230)를 뛰어넘는다고 칭찬하였다. 이 진술은 승안도일의 동시

³⁰ Harrist, 위의 책, p. 206.

³¹ ‘석송’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주요 후원자인 광씨 형제들과 서예를 쓴 승안도일과 잘 알고 지냈던 인물일 것이며, ‘석송’의 내용을 통해, 불교와 중국 문화에 매우 박식하며, 한문을 매우 유려하게 잘 쓰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석송’의 저자로 언급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111-112 참조.

³² “於是 有 大沙門 安法師 道鑒 不二 德悟 一原 匪直 秘相 咸韜 書工 尤最 乃 請 仲豪 於 …… 尋 師 瑤 翰 區 區 高 精 跨 羲 誕 妙 越 英 繇 如 龍 蟠 霧 似 鳳 騰 霄.”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164, 166 참조.

대인들이었던 철산 마에 각경의 후원자와 '석송' 저자가 승안도일의 서예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³³

특히 이 부분의 '석송' 내용은 저자가 북제 이전 시대에 서예에 대한 감식과 미적인 평가에 대한 담론에서 자주 사용되던 화법과 용어를 차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³⁴ 먼저, 6세기에 중국 한족 엘리트들은 서예 비평에서 서예가들의 서체를 비교하며 상대적인 장점을 논하는 전통이 있었다.³⁵ '석송'의 저자는 분명하게 이러한 서예 비평 전통을 알고 따르고 있으며, 대담하게도 한, 위, 동진 시기의 네 명의 서예 대가들보다 승안도일의 서체가 뛰어나다고 주장한다.³⁶ 다음으로, 철산 마에 각경의 서예를 쓴 승안도일을 이전 시기의 네 대가와 비교하는 데 사용된 '정'과 '묘'라는 용어는 중국 남조에서 4-5세기에 이미 서화 감평 분야에서 널리 퍼져있던 것이다.³⁷

특기할 만한 또 다른 점은 위의 인용문의 가장 뒷부분의 내용이다. '석송'은 승안도일의 서예의 시각적 특징을 “안개 속에서 몸을 휘어잡는 용과 같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봉황과 유사하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묘사하였다. 해리스트가 제시했듯이, 중국 남북조 시대(420-589)에는 용과 봉황, 호랑이 등의 모습을 빗대어 서예를 묘사하는 방식이 유행하였다. 예를 들면, 남조의 梁(502-587)나라 武帝(재위 502-549년)가 썼다고 전해지는 왕희지 서예의 품평에서 “天門에 도약하는 용과 같고, 鳳闕에 웅크린 호랑이 같다(如龍跳天門 虎臥鳳闕)고 하였다.³⁸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철산 마에 각경 제작자들은 그들의 불교 기념비를 제작하는 데에 중국 한족의 문화적 우수성을 드러내는 요소들, 즉 전통적인 중국 석비 형태와 훌륭한 서예, 그리고 서예 감평과 미적 평가에 대한 담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이 우수

33 로타 레더로제와 로버트 해리스트는 승안도일의 서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한 바 있다.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1*, pp. 43, 94-95;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114-115; Ledderose, “Scaling the Cliffs,” *Orientalia* 44-1 (2013): pp. 51-58; Harrist, 위의 책, pp. 196-205 참조.

34 Harrist, 위의 책, pp. 195-196; 畢斐, “The Stone Hymn and Art Criticism,” in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38-39.

35 Harrist, 위의 책, p. 195; 畢斐, 위의 논문, pp. 35-40.

36 畢斐는 '석송'의 이러한 칭찬은 과장을 포함한 수사적 표현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였다. 畢斐, 위의 논문, p. 39.

37 '정'은 서예가의 붓의 움직임에 대한 평가이고, '묘'는 서예작품 전체에 대한 것이다. 畢斐는 이 두 용어가 중국에서 왕희지가 활동했던 4세기에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이후 서예 이론의 기본 용어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서화의 감식과 비평에 사용된 용어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남북조시대에 '정'과 '묘'의 용어가 남조에서 한족 엘리트 전통 하에 널리 사용되었음은 분명하다. 畢斐, 위의 논문, pp. 37-38.

38 Harrist, 위의 책, pp. 195-196 and 335n136. 畢斐 또한 위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 어구는 4-5세기 서예 양식을 설명하는 데에 자주 사용되던 표현이었다고 했다. 畢斐, 위의 논문, pp. 37 and 39.

한 전통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알리며, 이 요소들을 통해 철산 각경의 미적, 문화적, 종교적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³⁹ 이러한 특징들은 철산 각경이 오직 불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며, 이외의 다른 사회 문화적 측면에 대한 호소가 중요하게 포함되었을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IV. 철산 각경의 사회 문화적 동기: 漢族 후원자의 문화적 정체성 구현

철산 각경 제작자들이 의도한 사회 문화적 측면에 대한 호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철산 불교 각경의 주요 후원자였던 광씨 형제들은 어떠한 인물들이었는지, 그들이 당시 처했던 상황은 어떠한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석송'에서 광씨 형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때 신실한 佛弟子 匡喆과 그 아우들 顯, 口, 祖, 珎은 漢丞相 匡衡의 자손들이다.

빼어난 덕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고, 영웅적인 자태는 독보적으로 뛰어나다.

(하늘의) 광대한 굽은 밧줄이 일찍이 손상되었음을 알고,

땅의 축이 거의 붕괴했음을 알며,

푸른 바다가 위치를 바꾸니 한숨을 쉬고,

태산이 무너지니 탄식한다.⁴⁰

위의 '석송' 내용에 의해, 철산 각경의 주요 후원자들은 추성시 부근에 거주했던 '匡'씨 가문의 일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석송'의 광씨 형제에 대한 기록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漢代 최고위직이었던 승상을 역임한 광형(기원전 48-32년경 활동)의 후손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광형은 실제 현존했던 인물로, 한대 元帝(기원전 75-33년, 재위 기원전 49/48-33년)와 成帝(기원전 51-7년, 재위 33-7년) 기간에 승상의 지위에 올라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

³⁹ 해리스트도 필자와 유사하게 철산 각경 제작자들이 '석송'에 서예 비평과 미적 감평 담론을 가져옴으로써, 철산 각경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고 주장했다. Harrist, 위의 책, p. 196.

⁴⁰ “是以有信佛弟子 匡喆及弟顯口祖珎 漢丞相衡之苗裔也 秀德自天 英姿獨拔 知宏綱尚缺 察地紐方傾 嘆滄海猶遷 嗟太山言落.” 張廣存, 위의 논문, pp. 217-218;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160-162.

다.⁴¹ 광씨 일가는 광형 이래로 추성시 부근에 적을 두고 오래 거주한 지역 유지였다. 불교 기념비의 제기에 후원자의 가까운 조상은 종종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멀리 떨어진 조상을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석송의 광철 형제의 가계 혈통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들 자신의 주장일 뿐이며, 광철 형제들이 실제로 광형의 후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송의 내용은 완전히 허구의 것임은 아닌 듯하다. 전통적으로 서화의 題記 혹은 造像記 등에는 후원자의 공식 타이틀 및 관직명이 열거된다.⁴² 그러나 ‘석송은 광씨 형제의 관직명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 만약 광씨 형제에게 공식 직책이 있었다면, 직위를 강조하며 내세우는 중국 전통에 따라, 틀림없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높은 명성을 지녔던 조상의 이름을 광철 형제를 위해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당시 사회적 상황과 관계가 있다. 당시 광씨 형제들은 과시할만한 어떠한 공식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한대 공신의 자손이라는 가계의 혈통만이 유일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었던 듯하다.

그렇다면, 지역 유력 한족 가문의 일원인 광씨 형제는 어떠한 의도로 철산의 불교 각경을 제작하는 데에 중국 한족의 문화적 우수성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을까? 광씨 형제가 광형의 후손임을 말할 뒤에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당시 북제대에 광씨 형제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준다. ‘석송은 그들의 “빠어난 덕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고, 영웅적인 자태는 독보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하늘의) 광대한 굽은 밧줄이 일찍이 손상되었음을 알고, 땅의 축이 거의 붕괴했음을 알며, 푸른 바다가 위치를 바꾸니 한숨을 쉬고, 태산이 무너지니 탄식한다”라고 하였다. ‘석송의 이 암울한 상황의 묘사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은 당시 불교의 상황과 연결하여 말법과 관계된 것으로 보거나,⁴³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⁴⁴ 이 문구가 광씨 형제의 혈통을 설명하고, 바로 뒤이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내용은 당시 한족이었던 광씨 형제가 처했던 상황과 관련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고귀한 한족의 혈통과 덕을 하늘에서 받아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⁴⁵ 당시 세상이 변하여, 더 이상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41 광형의 간략한 傳記는 다음을 참조. Michael Loewe, *A Biographical Dictionary of the Qin, Former Han and Xin Periods, 221 BC-AD 24* (Leiden; Boston: Brill, 2000), pp. 213-215; 魏洛, 『中國宰相全傳』1 (北京: 工商出版社, 1996), pp. 141-146.

42 Dorothy Wong, *Chinese Steles: Pre-Buddhist and Buddhist Use of a Symbolic Form*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p. 99.

43 Harrist, 위의 책, p. 166.

44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 109.

45 이러한 믿음은 고대 중국에서 덕과 공이 있는 자들에게 천자가 성을 하사하며, 그 성을 이어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덕과 공을 이어받는다는 생각에서 유래한다. Xudong Hu, “Rethinking Chinese Kinship in the Han and the Six Dynasties: A Preliminary Observation,” *Asia Major*, third series, 23-1 (2010), pp. 52-53.

아쉽게도 석송에는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더 자세히 솔직하게 적을 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으리라 짐작될 뿐이다. 당시 북제 사회를 보면 이러한 '석송'의 기록과 잘 부합됨이 확인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제 사회는 北魏(386-534), 東魏(534-550)에 이어 非漢族인 鮮卑族계의 황제들과 관료들에 의해 통치되던 시기였다. 실제로 당시 비한족 황제와 고위 관료들의 한족 엘리트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았음은 박한제, 제니퍼 홈그린, 앨버트 디엔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져 왔다.⁴⁶ 왕조의 통치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중국 전통의 통치 체제 및 제도는 받아들이고, 그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한족 관료들을 등용하기는 했지만, 한족 엘리트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압박받고, 갑작스러운 사건을 빌미삼아 처형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다.⁴⁷

북위 말 孝文帝(467-499, 재위 471-499년)에 의한 한족의 문화와 언어를 되살리려던 한화 정책은 완전히 힘을 잃었고, 한화 정책에 반대하던 세력에 의해 세워진 동위, 북제시기에 한족의 언어, 문화와 관습 모두 설 자리를 잃었다.⁴⁸ 490년대와 500년대 초에 용문 석굴에는 비한족 관료들이 불감을 세우고, 그 옆에 조상 제기를 만들면서 전통적인 석비의 형태를 취하게 하고, 유명한 서예가를 고용하면서까지 한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모방하려고 하였다. 한 예로 楊大眼이라는 북방계 비한족 武人이 용문석굴 고양동에 504년 제작한 불감 하나와 조상기를 들 수 있다(도 9).⁴⁹ 이 조상기는 중국 전통적인 석비의 형태로 되었으며, 碑身에 아름다운 서체로 씌어졌다(도 10). 조상기의 내용은 양대안이 話者인 듯 되어 있지만 그는 한문에 문맹이었기 때문에, 이 글을 직접 쓸 수 없었다.⁵⁰ 따라서, 그는 조상기를 위해, 글을 잘 쓰고 서예를 잘 하는 사람을 고용했음이 틀림없다.

⁴⁶ 대표적인 연구로 朴漢濟,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의 전개』,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 編, 『分裂과 統合: 中國中世의 諸相』(지식산업사, 1998), pp. 130-157; Jennifer Holmgren, "Seeds of Madness: A Portrait of Kao Yang, First Emperor of Northern Ch'i, 530-560 AD," *Papers on Far Eastern History* 23-24 (1981), pp. 120-123; Albert E. Die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astern Wei and Northern Qi states," in Katherine R. Tsiang ed., *Echoes of the Past: the Buddhist Cave Temples of Xiangtangshan* (Chicago: Smart Museum of Art, University of Chicago: Distributed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pp. 80-82 참조.

⁴⁷ Andrew Eisenberg, *Kingship in Early Medieval China* (Leiden; Boston: Brill, 2008), pp. 93-126.

⁴⁸ 박한제, 위의 논문, pp. 130-140; Dien, 위의 논문, pp. 80-82.

⁴⁹ 양대안은 종족상 氏人으로, 그의 조상들은 漢代 이래로 감숙성에 정착하여, 한족 성을 받고, 한문화를 받아들였다. 양대안의 조상과 그의 간략한 전기는 姚薇元, 『北朝胡姓考』(北京: 中華書局, 1962), pp. 342-346; Amy McNair, *Donors of Longmen: Faith, Politics, and Patronage in Medieval Chinese Buddhist Sculptur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pp. 27 and 184n64.

⁵⁰ 魏書, ch. 73, 1636; McNair, 위의 책, p. 27 재인용.



도 9 龍門石窟古陽洞 북벽 제228감 楊大眼造像龕, 504년(劉景龍編, 『古陽洞: 龍門石窟第1443窟』, pl.87).



도 10 도 9의 세부, 楊大眼造像龕의 조상기(劉景龍編, 『古陽洞: 龍門石窟第1443窟』, pl. 96).

그러나, 동위, 북제대가 되자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 급변하였다. 더 이상 한족들의 문화는 훌륭한 가치의 것으로 존중받지 못했다. 반면에 선비족의 문화가 르네상스를 맞이하였고,⁵¹ 새로 들어온 중앙아시아 문화가 대유행하였다.⁵² 산서성 태원에서 발견된 婁睿(531-570)의 무덤의 벽화에는 선비족의 복장을 하고 말을 탄 인물들이 다수 표현되었다(도 11).⁵³ 또, 하남성 안양의 范粹墓(d. 575)에서 발굴된 한 편호에는 중앙아시아계 인물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도 12).⁵⁴ 이러한 유물들은 당시 선비족과 중앙아시아 문화가 매우 유행했음을 잘 보여준다.

⁵¹ Dien, "A New Look at the Xianbei and their Impact on Chinese Culture," in George Kuwayama ed., *Ancient Mortuary Traditions of China* (Los Angeles and Honolulu: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and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1), pp. 48-49.

⁵² Katherine Tsiang, "The Xiangtangshan Caves: Buddhist Art and Visual Culture in the Northern Qi Dynasty," in Katherine R. Tsiang et al. eds., *Echoes of the Past: The Buddhist Cave Temples of Xiangtangsh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2010), pp. 48-51.

⁵³ 선비족 고위 관리였던 루예는 북위말 세력을 키운 高歡의 아내 武明皇后(婁昭君, 501-562)의 조카로, 고환의 아들이자 북제의 첫 번째 황제인 文宣帝(재위 550-559)와 사촌지간이다. 루예의 전기는 北齊書 15.197; 北史 54.1955-56. 그의 무덤벽화는 파손이 심한데, 남아 있는 부분은 山西省考古研究所에 보관되어 있다. 山西省考古研究所, 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 『北齐东安王娄睿墓』(北京: 文物出版社, 2006).

⁵⁴ 이 편병에 묘사된 중앙아시아계 인물들에 대해서는 Tsiang, "The Xiangtangshan Caves," p. 49; James C. Y. Watt et al. eds., *China: Dawn of a Golden Age, 200-750 A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4), p. 251; Kate Lingley, "Naturalizing the Exotic: On the changing meanings of ethnic dress in medieval China," *Ars Orientalis* 38 (2010), p. 52 등 참조.



도 11 산서성 태원 裴睿墓의 墓道 東壁 제2층 벽화, 말안장을 올린 말과 선비족들의 모습(山西省考古研究所, 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 『北齐东安王娄睿墓』, 채색도판 38).



도 12 하남성 안양 范粹墓에서 발굴된 편호, 높이 20cm(Watt, James C. Y. et al. eds., *China: Dawn of a Golden Age, 200-750 AD*, p.251, pl.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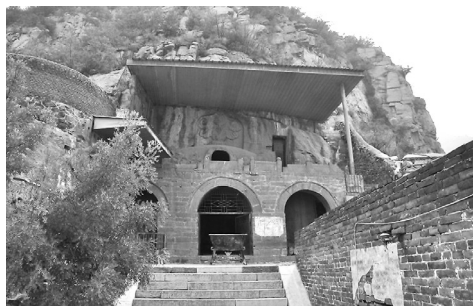
이러한 시기에 중앙에서 활동하던 한족들은 그들의 정치사회적, 문화적 위치에 불안정함을 느꼈을 것임은 분명하다.⁵⁵ '석송'에서 사용된 언어들도 광씨 형제들이 자신들의 혈통과 특권이 쇠퇴해감에 대한 깊은 절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중앙에서 한족 엘리트가 겪었던 근심과 일맥상통한다. 철산 각경의 한족 후원자들이 당시 직접적인 정치적 화를 당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당시 중앙과 산둥 추성 지역의 상황 사이에 중요한 연결 고리가 존재해서 매우 주목된다. 이 인물은 바로 唐鬪(d. 581)이다.

당용은 북제기에 중앙의 고위직에 올랐던 소수의 한족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568년에서 572년 사이에 수도 업성에서 가까이 위치한 북향당산 석굴 중 남동 입구의 북쪽 측벽에 『維摩詰經』, 『勝鬘經』, 『孝經』, 『彌勒成佛經』의 네 가지 불교 각경을 제작하게 한 인물이다(도 13, 14).⁵⁶ 그의 정치적 삶에서 560년대 말에서 570년대 초반에 갑자기 관직을 박탈당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역사학자들은 선비족들의 한족 견제와 관계있다고 설명한다.⁵⁷ 북향당산에서 그가 제작한 각경 중에서 『패경』은 중국 5-6세기 불교 및 불교미술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서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경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패경』은 일종의 본생담으로, 석가모니가 한 전생에 '패'라는 매우 능력 있고 황제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으나, 그를 시기한 다른

55 북제의 조정에서는 황제와 비한족 관료들의 한족에 대한 반감에 의해 한족 관리들이 갑자기 무참히 처형당하는 사건들이 적지 않았다. Dien, "The Historical Background," 84; 박한제, 위의 논문, pp. 128-129 and 137; Holmgren, 위의 논문, pp. 120-123.

56 북향당산 남동의 각경과 당용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Tsiang, "Monumentalization of Buddhist texts," pp. 236-238.

57 Eisenberg, 위의 책, pp. 121-122.



도 13 북향당산석굴 남동 전경(하정민)



도 14 북향당산석굴 남동 외부 북쪽면의 각경, 568-572년(하정민)

관리들의 음모로 관직을 박탈당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당용이 이 경전을 선택하여 각경으로 제작한 것이 그 자신의 정치적 경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주목된다.⁵⁸ 즉, ‘패와 같이 당용도 당시 궁궐에서 선비족 관료들의 음모로 관직을 잃었고,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같은 내용을 서술한 『패경』을 새기게 했다는 것이다.⁵⁹

북향당산의 각경 이후에 당용은 철산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침산에서 575년에 그의 아내와 함께 『문수설반야경』 중 ‘반야바라밀’에 관한 98자 경문의 각경을 후원하였다. 안타깝게도 침산의 각경은 1960년대에 이곳에 채석장이 열리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⁶⁰ 다행히, 탁본과 청대 금석학자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서 후원자와 각경 위치,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唐邕과 그의 아내 趙씨가 經主로 각경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도 15).⁶¹

침산 사이트에서는 또 다른 지역 한족인 韋씨 가문의 구성원들이 각경 활동을 이끌어 주 목된다. 이들 역시, 자신들이 추성 출신의 유명한 한대 승상 韋賢(기원전 147-66년)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으며,⁶² 철산의 후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관직도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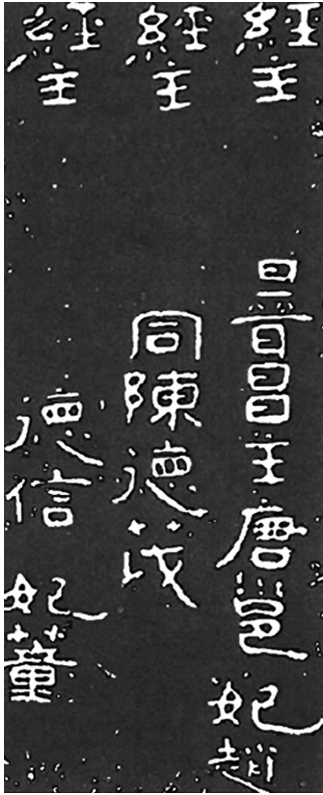
58 謝振發, 「響堂山石窟南洞北齊石經試論—唐邕의刻經事情をめぐって」, 曾布川寬 編, 『中國美術の圖像學』(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06), pp. 377-380; 陳海娟도 이와 유사하게 본다. 陳海娟, 「刻經者的階層意識—以“唐邕刻經”爲例」, 『世界宗教文化』3 (2006), p. 53.

59 다행히 그는 처형당하지는 않았고, 이후 570년 전반에 복권되었다. Eisenberg, 위의 책, pp. 121-122.

60 침산 각경 위치의 복원과 새겨진 경전과 제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賴非, 위의 책, pp. 81-101 참조.

61 이 조상제기는 “經主 □書 晉昌王 唐邕妃趙 經主 □□同 陳德茂 經主 □□□ 德信妃董”으로 석문된다. 당용이 그의 아내 조씨가 진덕무, 덕신과 비 등씨와 함께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기는 『문수설반야경』의 경문 우측 아래 새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賴非, 위의 책, p. 101, 각 명문 배치 분포도 참조.

62 위현의 간략한 전기에 대해서는 Michael Loewe, 위의 책, pp. 577-578; David R. Knechtges and Taiping Chang eds., *Ancient and Early Medieval Chinese Literature: a Reference Guide*, Part 1 (Leiden: Brill, 2010), p. 1304; 魏洛, 위의 책, pp. 138-140.



도 15 山東省鄒城尖山唐邕妃等題名
 탁본(賴非, 『山東北朝佛教摩崖
 刻經調查與研究』, p. 86, 圖 62).

고 있지 못했다. 산서성 태원 출신인 당옹이 추성시 부근의 위씨 가문과 어떠한 관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같은 사이트에서 함께 각경을 제작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가까운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옹은 중앙 조정에서의 자신의 경험과, 한족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가 북향 당산에서 했던 각경 사업에 대해 침산의 위씨 가문과 공유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침산에서 당옹과 위씨 가문이 함께 후원한 각경은, 그 후 4년 후인 579년에 침산과 바로 인접한 철산에서 한족인 광씨 형제들이 자신들의 기념비를 제작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두 산이 지리적 거리가 인접한 점, 그리고 두 각경의 제작 시기가 가까운 점 때문만은 아니다. 이 두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인물은 바로 승려 승안도일이다. 그는 침산과 철산의 두 사이트에서 활동한 유일한 승려로서, 두 사이트에서 모두 지역 한족 유력 가문의 후손들과 작업하였다.⁶³ 승안도일의 존재는 당옹이 함께 참여했고 지역 위씨 가문이 제작한 침산의 각경과, 지역 광씨 가문이 제작한 철산의 각경 사이에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당옹과 승안도일의 존재로 우리는 중앙의 한족과 이곳 추성 지역의 한족 위씨 가문과 광씨 가문이 서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철산의 광씨 후원자들은 한족이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놓이지 못하고, 한족들의 문화가 존중받지 못하던 시기에,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한족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철산의 각경을 구상하여 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도 하에, 불교적인 기념비에 중국 한족의 문화예술 전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⁶⁴

⁶³ 그는 침산에서는 각경을 조직하고, 직접 경주로서 등장하기도 하며, 서에도 담당했다. 철산에서는 서예가로서 그의 이름이 언급된다. 賴非, 위의 책, pp. 83, 88, 92의 탁본 참조.

⁶⁴ 중국 6세기에는 산동성을 비롯하여 하남과 하북 일대에서 조상비 및 각경비가 철산의 각경비와 유사하게 시각적으로 중국 전통적인 석비의 형태로 제작된 예가 상당수 전해진다. 그러나 이 예들을 모두 한족 후원자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는 그 후원자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작품

철산이 위치한 추성시는 한족의 유교 문화적 전통이 강하게 전해지던 곳이다. 추성시는 유교 사상가 孟子(약 기원전 372-289)의 고향이며, 추성시의 북쪽으로 약 22km 거리에는 유교의 창시자 孔子(약 기원전 551-479)의 고향인 曲阜가 위치해 있다. 곡부와 추성시 부근은 공자와 맹자의 제자들 및 한족 유교 사상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지역이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유교 문화 전통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었다.⁶⁵ 더욱이, 중국 역사상 남북조 시기(420-589)의 초기에, 오늘날 산둥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한족들에 의해 세워진 남조 왕조들 중 하나인 劉宋(420-479)의 통치 하에 있어서, 정치·문화적으로 한족의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⁶⁶ 이러한 문화적 특징이 철산의 불교 모뉴먼트가 시각적으로 중국 전통의 석비 형태로 제작되도록 한 데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⁷

V. 결론

본고는 철산에 새겨진 불교 텍스트와 함께 철산 각경의 시각적인 특징 및 석송에 설해진 후원자와 모뉴먼트에 대한 설명에 주목하여, 철산 각경의 불교적, 사회 문화적 동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철산 각경의 불교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왔다. 철산 각경에 대해 연구한 학자 중 해리스트는 북제대에 불교 경전 자체에 대한 신앙이 매우 컸으며, 그러한 환경 하에서 철산 각경이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본다.⁶⁸ 한편 레더로제는 앞에서 살펴본 '석송'에 묘사된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철산 각경이 제작된 북제 대에 널리 퍼져 있었던 불교의 末法 사상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이에 철산 각경은 불교 경전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전하기 위한 목적이 컸을

이 어떠한 의도에서 제작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철산 각경비의 경우에는 '석송'에 후원자들의 한족 혈통과 그 제작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와 같은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⁶⁵ Harrist, 위의 책, p. 162; Ledderose, "Buddhist Stone Sutras in Shandong," in Ledderose ed. (2014), p. 20; Ledderose, "Buddhist Stone Sutras in Shandong," in Ledderose ed. (2015), p. 12.

⁶⁶ 유송이 479년에 붕괴된 이후, 이 지역은 비한족계 선비족이 세운 왕조인 북위(386-534), 동위(534-550), 북제(550-577)의 영역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⁶⁷ 레더로제는 산둥성 지역의 각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교도들이 상징적으로 유교의 중심지를 침입한 것이고, 불교의 가르침을 산의 절벽면에 새김으로써 불교가 유교의 가르침을 뛰어넘는다는 시각적인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았다. Ledderose, "Buddhist Stone Sutras in Shandong," in Ledderose ed. (2014), p. 20. 그러나 필자는 유교의 중심지에서 불교미술이 제작되면서 그 형태가 기존의 불교미술과는 다르게, 유교의 전통에서 익숙한 시각적 형태를 띠었다고 본다.

⁶⁸ Harrist, 위의 책, pp. 182-188.

것으로 보았다.⁶⁹ 그에 의하면 철산 각경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579년은 북주 무제에 의한 폐불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철산 각경은 당시 폐불에 대한 불교의 승리를 나타낸 것이다.⁷⁰

그러나 본고는 철산 각경의 제작자들이 기록한 ‘석송의 메시지는 북제의 사회와 문화의 맥락을 고려해야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석송에 묘사된 암울한 상황은 한족 엘리트 후원자들의 입장에서, 한족의 문화와 관습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들이 핍박받고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놓였던 북제 사회에 대한 묘사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579년은 북제가 북주에 패망했던 577년 직후이므로,⁷¹ 철산 모뉴먼트는 북제대에 유행했던 비한족 문화에 대한 한족 문화의 승리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철산의 거대한 각경비는 중요한 불교 모뉴먼트일 뿐만 아니라, 한족 엘리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찬란한 문화전통을 조용히 과시하는 문화적 모뉴먼트이자, 자신들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 구현을 위한 수사적 표현이었다.

***주제어(key words)** 철산(鐵山, Mt. Tie), 마에 각경(摩崖 刻經, Engraved Sutra), 대집경(大集經, the Great Collection Sutra), 석송(石頌, Stone Hymn), 승안도일(僧安道壹, Seng'an Daoyi), 한족(漢族, Han-Chinese), 북제(北齊, Northern Qi), 산둥(山東, Shandong), 추성(鄒城, Zoucheng)

■ 투고일 2017년 2월 28일 | 심사개시일 2017년 3월 20일 | 심사완료일 2017년 4월 24일 ■

⁶⁹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p. 110-111.

⁷⁰ 북주 무제에 의한 폐불은 574년 6월 21일에 시작되었고, 북주가 577년 봄에 북제를 패망시키면서 북제의 영토였던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다행히 무제가 578년 6월 21일에 사망하면서 폐불은 종식되었다.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1*, pp. 29-30.

⁷¹ ‘석송의 기록에 따르면, 철산 각경은 서력으로 579년 9월 23일에 완성되었다.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1*, p. 30;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Shandong 2*, p. 164.

참고문헌

1. 사료

『大方等大集經』, T397.

『文殊師利所說摩訶般若波羅蜜經』, T232, T233.

『北史』

『北齊書』

『魏書』

2. 한국어문헌

김선경, 「북제(北齊) 소남해중굴(小南海中窟)과 승조(僧稠) 선사」,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향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사회평론, 2006.

朴漢濟, 「東魏-北齊時代の 胡漢體制的 전개」,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 編, 『分裂과 統合: 中國中世의 諸相』, 지식산업사, 1998.

하정민, 「북제(北齊) 산동성 홍정산(洪頂山)에 새겨진 불교 텍스트: 선정 수행을 위한 불교 각경(刻經)」, 『미술사와 시각문화』 17, 2016.

3. 일본·중문

國家文物局 編, 『中國文物地圖集山東分冊』上,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2007.

桐谷征一, 「北齊大沙門安道壹の刻經事跡」, 『大崎學報』 158, 2002, pp. 1-67.

_____, 「北齊大沙門安道壹刻經事跡」, 山東省石刻藝術博物館 編, 『北朝摩崖刻經研究 續』, 香港: 天馬圖書有限公司, 2003, pp. 45-91.

_____, 「泰山, 鐵山刻經同出北周論」, 『北朝摩崖刻經研究 三』,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6, pp. 93-108.

_____, 「北齊唐邕刻經記と僧安道壹の事跡」, 相川鐵崖古稀記念書學論文集編集委員會 編, 『相川鐵崖古稀記念書學論文集』, 東京: 木耳社, 2007, pp. 159-173.

賴非, 「僧安刻經考述」, 『北朝摩崖刻經研究 續』, 山東省石刻藝術博物館 編, 『北朝摩崖刻經研究 續』, 香港: 天馬圖書有限公司, 2003, pp. 92-134.

_____, 「齊魯碑刻墓志研究」, 齊南: 齊魯書社, 2004.

- ____, 『山東北朝佛教摩崖刻經調查與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2007.
- ____, 『山東泰嶧山區における刻經の新資料と北朝隋唐期の佛教』, 氣賀澤保規 編, 『中國中世佛教石刻の研究』, 東京: 勉誠出版, 2013, pp.29-63.
- 謝振發, 『響堂山石窟南洞北齊石經試論—唐邕の刻經事情をめぐって』, 曾布川寬 編, 『中國美術の圖像學』,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06, pp.361-409.
- 山東石刻藝術博物館 編, 『北朝摩崖刻經研究』, 齊南: 齊魯書社, 1991.
- _____, 『北朝摩崖刻經研究續』, 香港: 天馬圖書有限公司, 2003.
- _____, 『北朝摩崖刻經研究 三』,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6.
- 山西省考古研究所, 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 『北齊東安王婁睿墓』, 北京: 文物出版社, 2006.
- 相川政行, 『鐵山大集經和經頌書法研究』, 山東省石刻藝術博物館 編, 『北朝摩崖刻經研究續』, 香港: 天馬圖書有限公司, 2003, pp.135-157.
- _____, 『鄒城市鐵山「大集經」題刻と「石頌」の研究』, 『立正大學文學部研究紀要』20, 2004, pp.1-17.
- _____, 『鄒城市鐵山「大集經」題刻と「石頌」の研究(再考)』, 相川鐵崖古稀記念書學論文集編集委員會 編, 『相川鐵崖古稀記念書學論文集』, 東京: 木耳社, 2007, pp.33-51.
- 姚薇元, 『北朝胡姓考』, 北京: 中華書局, 1962.
- 王思禮·賴非, 『中國北朝佛教摩崖刻經』, 山東石刻藝術博物館 編, 『北朝摩崖刻經研究』, 齊南: 齊魯書社, 1991, pp.1-42.
- 劉景龍 編, 『龍門二十品: 北魏碑刻造像聚珍』,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 _____, 『古阳洞: 龍門石窟第1443窟』, 北京: 科學出版社, 2001.
- 劉景龍, 李玉昆 主編, 『龍門石窟碑刻題記彙錄』上,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8.
- 魏洛, 『中國宰相全傳』1, 北京: 工商出版社, 1996.
- 張廣存, 『鐵山刻經頌』識讀並校注, 山東省石刻藝術博物館 編, 『北朝摩崖刻經研究續』, 香港: 天馬圖書有限公司, 2003, pp.215-235.
- 張總, 『北朝至隋山東佛教藝術查研新得』, 巫鴻 編, 『漢唐之間的宗教藝術與考古』, 北京: 文物出版社, 2000, pp.61-88.
- _____, 『山東碑崖刻經經義的內涵素探』, 山東石刻藝術博物館 編, 『北朝摩崖刻經研究續』, 香港: 天馬圖書有限公司, 2003, pp.1-44.
- 陳海娟, 『刻經者的階層意識—以“唐邕刻經”為例』, 『世界宗教文化』3, 2006, pp.50-53.

4. 영문

- Bi, Fei (畢斐), “The Stone Hymn and Art Criticism,” in *Buddhist Stone Sutras in China, Shandong Province* vol. 2. Wiesbaden: Harrassowitz: 2015, pp.31-40.

- Dien, Albert E. "A New Look at the Xianbei and their Impact on Chinese Culture," in George Kuwayama ed., *Ancient Mortuary Traditions of China*. Los Angeles and Honolulu: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and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1, pp.40-59.
- _____,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astern Wei and Northern Qi states," in Katherine R. Tsiang ed., *Echoes of the Past: the Buddhist Cave Temples of Xiangtangsh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2010, pp.80-91.
- Eisenberg, Andrew. *Kingship in Early Medieval China*. Leiden; Boston: Brill, 2008.
- Ha, Jungmin, "Shaping Religious and Cultural Aspiration: Engraved Sutras in Southwestern Shandong Province from the Northern Qi Dynasty (550-577 CE), China," Ph.D.dissertation, Duke University, 2016.
- Harrist, Robert E. "Reading Chinese Mountains: Landscape and Calligraphy in China," *Oriental Art* 31-10, 2000, pp.64-69.
- _____, "The Virtual Stele on Tieshan and the Engraved Sutras of Shandong Province," *Oriental Art* 49, no. 4, 2003-2004, pp.2-13.
- _____, *The Landscape of Words: Stone Inscriptions from Early and Medieval China*.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8.
- Holmgren, Jennifer. "Seeds of Madness: A Portrait of Kao Yang, First Emperor of Northern Ch'i, 530-560 AD," *Papers on Far Eastern History* 23-24, 1981, pp.83-134.
- _____, "Family, Marriage, and Political Power in Sixth Century China: A Study of the Kao Family of Northern Ch'i, c. 520-550," *Journal of Asian History* 16, 1982, pp. 1-50.
- Hou, Xudong (候旭東). "The Buddhist Pantheon," in John Lagerwey and Lü Pengzhi, eds., *Early Chinese Religion, Part two: the Period of Division (220-589 AD)*. Leiden; Boston: Brill, 2010, pp.1095-1168.
- _____, "Rethinking Chinese Kinship in the Han and the Six Dynasties: A Preliminary Observation," *Asia Major*, third series, 23-1, 2010, pp.29-63.
- Kim, Sunkyung. "Seeing Buddhas in Cave Sanctuaries," *Asia Major*, third series, 24-1, 2011, pp. 87-126.
- Knechtges, David R. and Taiping Chang eds., *Ancient and Early Medieval Chinese Literature: a Reference Guide*, Part 1. Leiden: Brill, 2010.
- Ledderose, Lothar ed. *The Heart of Enlightenment: Buddhist Art in China 550-600 (Das Herz Der Erleuchtung: Buddhistische Kunst in China 550-600)*, Köln: Museum für Ostasiatische Kunst, 2009.
- _____, "Scaling the Cliffs," *Oriental Art* 44-1, 2013, pp.51-58.
- _____, ed. *Buddhist Stone Sutras in China, Shandong Province* vol. 1. Wiesbaden: Harrassowitz, 2014.
- _____, ed. *Buddhist Stone Sutras in China, Shandong Province* vol. 2. Wiesbaden: Harrassowitz, 2015.
- Lingley, Kate. "Naturalizing the Exotic: On the Changing Meanings of Ethnic Dress in Medieval China," *Ars Orientalis* 38, 2010, pp.51-80.
- Loewe, Michael. *A Biographical Dictionary of the Qin, Former Han and Xin Periods, 221 BC-AD 24*. Leiden; Boston: Brill, 2000.

- McNair, Amy. *Donors of Longmen: Faith, Politics, and Patronage in Medieval Chinese Buddhist Sculptur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 Schopen, Gregory. "The Phrase 'sa pṛthivīpradeśaś caityabhūto bhavet' in the Vajracchedikā: Notes on the Cult of the Book in Mahayana," *Indo-Iranian Journal* 17, nos. 3-4, Nov.-Dec. 1975, pp. 147-181.
- Tsiang, Katherine. "Monumentalization of Buddhist Texts in the Northern Qi Dynasty: the Engraving of Sutras in Stone at the Xiangtangshan Caves and Other Sites in the Sixth Century," *Artibus Asiae* 56-3/4, 1996.
- _____, "Bodies of Buddhas and the Princes at the Xiangtangshan Caves: Image, Text, and Stūpa in Buddhist Art of the Northern Qi Dynasty (550-577)." Ph.D. dissertation.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Art, 1996.
- _____, et al. eds. *Echoes of the Past: The Buddhist Cave Temples of Xiangtangsh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2010.
- _____, "The Xiangtangshan Caves: Buddhist Art and Visual Culture in the Northern Qi Dynasty," in Katherine R. Tsiang et al. eds., *Echoes of the Past: The Buddhist Cave Temples of Xiangtangsh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2010.
- Watt, James C. Y. et al. eds., *China: Dawn of a Golden Age, 200-750 A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4.
- Wong, Dorothy. *Chinese Steles: Pre-Buddhist and Buddhist Use of a Symbolic Form*.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 Zhang, Zong(張總), "Mount Tie-Time: Dating," Ledderose ed., *Buddhist Stone Sutras in China, Shandong Province* vol. 2. Wiesbaden: Harrassowitz: 2015.

국문초록

중국 산둥성 남서부 鄒城市에 위치한 鐵山의 산기슭에는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높이 약 51.7m, 폭 약 14m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에 불교 경전의 일부가 새겨져 있다. 독실한 불교도 匡喆과 그 아우들 顯, 祖, 玠이 그들과 뜻이 같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각경을 제작했고, 그 완성 연대는 579년이었다. 흥미롭게도 철산의 마에 각경은 상단에 용과 하단에 거북이를 지닌, 중국 漢代에 형성된 전통적인 石碑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철산의 각경은 6세기 후반 北齊代(550-577)에 산둥성 지역에 조성된 다른 불교 마에 각경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철산 각경은 완만한 산길을 조금만 걸어 오르면 쉽게 이를 수 있는 산기슭의 공개적인 위치에 새겨졌다. 이는 산둥성 내 다른 동시기 불교 마에 각경이 산속 깊숙이 조용한 곳에 새겨진 것과 다르다. 시각적인 특징 면에서 철산의 각경은 큰 규모를 자랑하며 멀리서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작되었다. 산둥성의 6세기 후반 다른 불교 마에 각경이 약 3-7m 높이의 절벽 면에 100자 이내의 경문을 각 30cm 내외의 글자로 새긴 데 반해, 철산의 각경은 높이 50미터가 넘는 산의 표면에 946 글자의 긴 경문을, 각 글자의 크기도 50cm로 크게 조각한 것이다. 또, 다른 각경들이 단순히 직사각형의 구획 안에 새겨진 데 반해, 철산 각경은 중국 전통적인 석비의 형태로 제작되어 주목을 요한다.

본고는 6세기 후반에 광철 형제가 자신들을 위한 불교 기념비를 만들고자 했을 때에, 어떠한 동기로 중국 전통의 석비 형태를 채택하여 거대한 산의 표면에 각경을 새기도록 했는지 탐구한다. 철산의 각경은 ‘石頌’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장문의 각경 제기가 새겨져 있어서, 각경 제작을 둘러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새겨진 불교 텍스트와 함께 철산 각경의 시각적인 특징 및 ‘석송’에 설해진 후원자의 정체성과 이 기념비에 대한 설명에 주목하여, 본고는 철산 각경의 제작 동기와 역사, 사회 문화적 의의를 고찰한다.

철산 각경의 제작 동기에는 불교적 요소와 사회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적으로는 菩提心과 육바라밀과 四無量心 등 불교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大方等大集經』의 한 부분을 공개적인 장소에 새김으로써, 이 각경을 볼 수 있는 모든 불교도들에게 불교 수행을 격려하고자 하였다. 철산 각경의 제작에는 후원자들의 사회 문화적인 동기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철산 각경 제작자들은 각경을 제작하는 데에 전통적 석비의 형태, 아름다운 서예, 그리고 서예 감평과 미적 평가에 대한 담론 등 여러 한족 지식인들의 전통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북제대는 선비족 문화와 관습, 그리고 중앙아시아 문화가 크게 유행하고, 한족 문화와 언어는 존중받지 못했던 사회였다. 대부분의 한족들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고, 소수의 관직을 얻은 한족들조차 정치·문화적으로 불안정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철산이 위치한 추성 지방의 한족 광씨 형제들은 여

러 한족 문화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찬란한 문화전통을 조용히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철산 각경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철산의 거대한 각경비는 중요한 불교 기념비일 뿐만 아니라, 지역 한족 엘리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 구현을 위한 수사적 표현이었다.

Abstract

The Gigantic Buddhist Stele Carved on Mt. Tie in Zoucheng in the Late Sixth Century: Han Patronage and Their Social and Cultural Goals

Jungmin Ha*

On the evenly ascending slope of Mt. Tie in Zoucheng, in the southwestern Shandong Province, the grand scale of Buddhist sutra carving reaches approximately 51.70 meters high and 14 meters wide. These magnificent carvings were created in ca. 579 CE. Interestingly, the sutra carving was laid out as a full-fledged traditional Han stele, with two dragons at the top and two tortoises below the sutra text. The carving at Mt. Tie has several characteristics distinct from Buddhist carvings at other mountains located in Shandong Province established during the Northern Qi Dynasty (550~577 CE). First, while the Buddhist carvings of this period were located in deep mountains and their location required an arduous climb up rough terrain to access them, the sutra carving at Mt. Tie is located at its foothill and is easily accessible to the public. Second, the scale of the carving at Mt. Tie was much more ambitious and the passages excerpted from the Buddhist sutra canon were much longer than those created at other mountains in Shandong. Third, the carvings at other mountains were created by monk patrons, while the carving at Mt. Tie was sponsored by several lay patrons. These features suggest that the carving at Mt. Tie was created not so much to serve religious goals, but rather to serve secular ones.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orm and content of the texts carved at Mt. Tie as a way to explore their patrons' goals for the creation of the giant stele form of sutra carving and the colophons there. It is fortunate that at the Mt. Tie site, the considerably detailed dedicatory inscription titled, *Stone Hymn* (*shisong* 石頌), still remains. The *Stone Hymn* gives us precious information about the patrons, their cultural identity, their social circumstances, and their aspirations for creating the carvings. Significantly, the *Stone Hymn* proudly reveals that the prime patrons' ethnic and cultural identity is Han Chinese, with illuminated ancestry tracing back to the Han Dynasty.

The visual aspects of the Buddhist carvings at Mt. Tie are very specific and identifiable. The creators intentionally employed the use of the traditional Chinese stele form and fine calligraphy for the text, and in the content of their writing, included an aesthetic evaluation of the calligraphy itself. Because of these intentional design and content element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Mt. Tie engraving was the visual rhetoric of the Han Chinese people's cultural identity, pride, and belief in their own supremac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Han Chinese patrons, as well as the Han Chinese artistic traditions they imported and then explores what the patrons hoped their creation would proclaim. Northern Qi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will be discussed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 in which the Han Chinese patrons chose the forms and content for their creations.